KIA 6회 6득점 '빅이닝' ··· 이의리 힘겨운 5승



KIA 타이거즈 타자들이 뜨거운타격으로이의리에게 승리를 안겨줬다.

KIA가 4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시즌 8차전에서 6-0 승리를 거뒀

2일 베테랑 양현종의 '2이닝 9실점' 악몽에 이어 3일에는 불펜진이 무너지면서 연승 뒤 연패를 기록 했던 KIA는 이날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영봉승 을 만들었다.

앞선 KT전 등판에서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(11개)을 새로 작성했던 이의리가 이날도 8개 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위력을 발휘했다. 그러나 이 번에도 투구수가 104개에 이르면서 앞선 등판과 마 찬가지로 5회밖에 책임지지 못했다.

하지만 0-0로 맞선 6회초 KIA가 대거 6점을 만 들어내면서 이의리가 시즌 5승에 성공했다.

1회 시작부터 이의리가 2개의 볼넷을 내줬지만 도루 실패 등으로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. 2회는 탈삼진 하나를 더한 삼자범퇴, 3회에는 선두타자 유강남을 우전 타자로 내보냈지만 두 개의 탈삼진 을 추가하는 등 더 이상의 진루를 허용하지 않았

4회 선두타자 전준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이 의리가 안치홍에게 우전안타를 맞은 뒤 정훈의 방 망이도 헛돌게 하면서 투아웃을 만들었다. 이어 한 동희의 타구가 외야로 향하면서 플라이로 이닝이 끝나는 것 같았다. 하지만 좌익수 고종욱이 공을 잡 았다 놓치면서 2사 1·3루의 위기가 전개됐다. 이의 리는 실책으로 맞은 위기에서 노진혁을 삼진으로 잡고 실점을 하지 않았다.

5회도 험난했다. 유강남과 김민석을 연속 볼넷으 로 내보내면서 무사 1·2루, 황성빈의 희생번트로 주자들이 이동했다. 1사 2·3루에서 이의리가 윤동 희와 8구 승부 끝에 이날 경기의 8번째 탈삼진을 장 식했다. 이어 전준우는 1루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 하면서 5이닝 2피안타 4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.

롯데와 시즌 8차전 6-0 승리 이의리 5회까지 104개 던져 잠자던 타선 6회 대폭발 불펜 제몫 다해 영봉승 완성

잠자던 KIA 타선이 6회 폭발했다.

선두타자로 나온 고종욱의 2루타가 시작점이었 다. 앞선 두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던 고종욱은 6회에만 두 타석에 들어서 두 개의 안타를 만들었

고종욱이 롯데 선발 한현희를 상대로 중견수 키 넘는 2루타로 출루한 뒤 소크라테스의 우중간 2루 타로 홈에 들어왔다. 롯데가 한현희를 내리고 김진 욱을 투입했지만 최형우가 중전안타로 분위기를 이 었다. 김선빈의 번트안타까지 나오면서 2-0이 됐

다시 투수가 김도규로 교체됐지만 이우성이 우중 간을 가르면서 2타점을 올렸다.

김규성과 류지혁까지 안타행진에 동참하면서 KIA가 6-0을 만들었다. 타자일순해 6회 두 번째 타석에 선 고종욱은 우전 안타로 멀티히트도 기록

남은 이닝에서 KIA가 추가점을 만들지는 못했 지만 전날 4실점으로 역전을 허용했던 불펜이 제

임기영이 3이닝을 책임지면서 2피인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중간 싸움을 해줬고, 김유신도 9회 마 운드에 올라 9개의 공으로 세 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면서 영봉승을 완성했다.

KT와의 주중 시리즈에서 연승 뒤 우천취소로 상 승세를 잇지 못했던 KIA는 사직 원정에서 연패는 기록했지만, 스윕패 위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승 2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.

/김여울 기자 wool@kwangju.co.kr



4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3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. 6회초 무사 2루에서 KIA 소크라테스가 선취 1타점 2루타를 치고 있다.

광주FC, 3인 3색 골로 포항 꺾었다

두현석·엄지성·안영규 연속골 포항 자책골 더해 4-2 승리



'3인 3색'의 골퍼레이드 로 광주FC가 간절했던 승 리를 만들었다.

광주는 지난 3일 광주축 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 그1 2023 16라운드 포항스

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 4-2 승리를 거뒀다.

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5분 상대의 자책골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. 이어 후반 10분 두현석에 이어 19분 엄지성이 골을 넣 으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.

후반 29분 이호재에게 헤더를 허용하면서 3-2, 1점 차로 쫓겼지만 후반 36분 두현석의 크로스가 안영규에게 연결되면서 광주가 승부의 추를 기울

이날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면서 22개의 파울 이 쏟아졌고, 9개의 경고 카드도 나왔다. 이희균은 오베르단의 팔꿈치 가격에 쌍코피를 흘리기도 했 다. 아쉬운 비디오 판독 오류도 있었던 만큼 더 간 절했던 승리다.

전반 막판 이순민이 김인성과 공을 다투다 넘어 졌고, 이어 오베르단이 넘어진 이순민의 허벅지를 밟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. 주심이 직접 문제 의 장면을 보기 위해 이동했지만 모니터에 이상이 생기면서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 했다. 당시 경기 장에는 보조 모니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, 뒤늦 게 비디오 판독실에서 움직였지만 이미 경기가 재 개됐다. 퇴장까지 가능했던 장면이었지만 아쉬운 경기 운영으로 광주는 손해를 봤다.

이런저런 악재에도 광주는 실력으로 '천적' 포 항을 제압하며 포항전 두 번째 승리를 만들었다. 안방에서 기록된 포항전 첫 승이기도 했고, 지난 4 월 1일 수원FC전 이후 두 달여 만에 만든 홈 승리

잘 싸우고도 골이라는 결과는 만들지 못하면서 7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 빠졌던 만큼 시원한 공세 가 반가웠던 경기였다.

경기가 끝난 후 이정효 감독도 "선수들이 홈팬









들 앞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 같고, 홈경기 때 감독의 체면을 세워준 것 같아서 칭찬해주고 싶 다.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을 것 같다. 광주가 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"고 모처럼 웃음을

1골 1도움(4호)의 활약을 선보인 두현석도 경 기가 끝난 후 기분 좋게 웃었다.

두현석은 "시즌 첫 골이고 풀백이라 골 넣을 기 회가 거의 없는데 골을 넣어서 좋았다. 무조건 이 기고 싶었다. 공을 차고 나서 넘어졌다가 눈 뜨니 까 공이 골대로 들어가 있었다. 골 넣는 장면 못 보 니까 앞으로는 안 넘어져야겠다(웃음). 골도 좋지 만 도움 줄 때가 더 좋다. 내가 도움 줘서 골 넣은 선수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도움 포인트를 많이 해 주고 싶다"며 "포항에 한 번 밖에 이겨보지 못했고 홈에서는 지기 싫었다. 죽는다는 생각으로 뛰었던 것 같다.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재미있었다. 몸싸 움하면 두려울 때도 있는 데 절대 안 져야겠다고 생각했다"고 밝혔다.

엄지성도 개인은 물론 득점 고민을 했던 팀에게 도 귀중한 골을 선보였다.

엄지성은 이날 아사니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

스까지 침투한 뒤 골키퍼를 마주하고 오른발로 공 을 밀어넣었다. 부상으로 쉬어가기도 했었던 엄지 성은 3월 18일 인천전 이후 8경기 만에 골 맛을 보 면서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보였다.

엄지성은 "전반전에 골을 못 넣어 멘탈이 무너 졌다. 아사니가 좋은 패스를 줘서 득점을 하게 돼 서 기쁨의 눈물이 났다. 너무 오랫동안 골을 못 넣 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주장 안영규의 골도 값졌다. 안영규는 3-2로 쫓 긴 후반 36분 두현석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 다. 문전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됐지만 끝내 안영규가 골망을 흔들면서 승리를 불렀다.

4라운드 인천전에도 골을 넣으면서 전천후 수비 수의 면모를 보여준 안영규는 "3-2로 따라 붙은 상 황이니까 추격을 꺾은 느낌이었다. 거기에서 경기 가 끝나지 않았나 싶다. 다행이었고, 주장으로 역 할을 한 것 같아서 기쁘다"며 "나를 맨투맨한 신광 훈 선수와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경기장 안에 서는 전쟁이다. 힘이 워낙 좋은 선수다. 공을 밀려 고 했는데 골키퍼가 그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순간 적으로 틀었는데 운이 좋았다"고 기뻐했다.

/김여울 기자 wool@kwangju.co.kr

김민재, 아시아 선수 최초 세리에A '수비왕'

세리에A 올해의 팀에도 뽑혀

'철기둥' 김민재(나폴리)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 초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'수비왕' 으로 뽑 히는 영광과 함께 '올해의 팀'에도 선정돼 데뷔 시 즌을 2관왕으로 장식했다.

세리에A 사무국은 3일(한국시간) 홈페이지를 통해 '2022-2023시즌 U-23·골키퍼·수비수·미드 필더·스트라이커 부문 최우수선수(MVP)' 명단 을 발표하면서 '최우수 수비수'로 김민재를 선정

김민재는 최우수 수비수를 놓고 나폴리 동료 조 반니 디로렌초, AC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와 함 께 후보에 올라 경쟁했고, 당당히 '수비왕' 으로 이 름을 올렸다.

2018-2019시즌부터 제정된 '포지션별 MVP' 에서 아시아 선수가 최우수 수비수로 뽑힌 것은 김

지난해 여름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2022-2023시즌 세리에A에 데뷔하자마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. 김민재는 지난해 9월 아시아 선수 최초로 '세리에A 이달의 선수'로 선정된 데 이어 10월엔 '이탈리아 축구선수협회 선정 이달의 선수'를 차지했다...

김민재는 더불어 2022-2023시즌 '세리에A 올 해의 팀'에도 이름을 올렸다. '올해의 팀'은 45명 의 후보 가운데 팬투표 50%, 기자단 투표 50%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됐다.

골키퍼에는 보이치에흐 슈쳉스니(유벤투스)가 뽑힌 가운데 미드필더에는 산드로 토날리(AC밀 란), 아드리앙 라비오(유벤투스), 니콜로 바렐라 (인터 밀란), 공격수에는 흐비차 크라바츠헬리아 (나폴리), 하파엘 레앙(AC밀란), 빅터 오시멘 (나폴리)가 '올해의 팀'에 포함됐다. /연합뉴스

맨시티, 트레블까지 90분 남았다

맨유 2-1로 꺾고 FA컵 우승 리그 우승 이어 '더블' 달성 11일 인터밀란과 챔스 결승

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(맨시티)가 '맨체스터 더비'에서 승리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 (FA)컵에서 우승했다. 통산 두 번째 트레블(3관 왕)까지는 이제 한 번의 승리만을 남겨뒀다.

맨시티는 3일(이하 한국시간) 영국 런던의 '축 구 성지'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-2023시 즌 FA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(맨유) 를 2-1로 제압했다.

FA컵 결승 무대에서 펼쳐진 첫 맨체스터 더비 에서 승리한 맨시티는 2018-2019시즌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7번째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.

앞서 잉글랜드 정규리그인 프리미어리그(EPL)에서 우승한 맨시티는 시즌 2관왕인 '더블'도 이 뤄냈다.

맨시티는 오는 11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

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인터밀란(이탈리아)을 상대로 치를 유럽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리 그(UCL) 결승에서도 승리하면 통산 2번째 '트레 블'(3관왕)을 이룬다.

맨시티가 UCL 우승을 포함하는 트레블 도전에 나서는 것은 올 시즌이 처음이다.

잉글랜드 구단 중 UCL 우승을 포함한 트레블 을 달성한 팀은 1998-1999시즌의 맨유가 유일하 다. 당시 맨유는 정규리그와 FA컵, UCL에서 우

'캡틴' 일카이 귄도안이 이날 원맨쇼를 펼치며 맨시티의 우승에 앞장섰다.

귄도안은 경기 시작 12초 만에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.

맨유는 전반 33분 브루누 페르난드스의 페널티 킥 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.

앞서 맨시티 잭 그릴리시가 공중볼 경합 도중 핸

드볼 파울을 범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.

귄도안은 후반 6분 더브라위너가 오른쪽에서 올 려준 프리킥 크로스를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발리 슛으로 연결해 '우승골'을 터뜨렸다. /연합뉴스